



즉시 배포용: 2019 년 2 월 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실린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 임신 중단권에 대한 TRUMP 대통령의 공격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Trump 대통령과 천주교 교회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같은 주 조치가 기존 연방법과 굳게 정립된 관행을 성문화하는 것일 뿐인데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이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단을 하는 소수의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Trump 대통령과 그 협력자들이 임신 중단을 전적으로 불법화하려는 열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로(Roe) 판결 이전으로 되돌리려함에 대한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는 뉴욕 법을 공격하고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의 보호를 불법화하자고 제안한 Trump 대통령에 대응하는 기고문입니다. 지난달 Cuomo 주지사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뉴욕주 법에 성문화하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서명했습니다.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밤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Trump 대통령은 뉴욕이 지난달 통과시킨 여성의 임신 중단권 성문화 법을 공격했으며 1973 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제공하는 보호를 뒤집는 연방 법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비판은 증가하고 있는 극우파 공격의 일부로, 헌법에 규정된 여성 권리를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하기 오래 전인 1999 년, Trump 대통령이 스스로를 “임신 중절 합법화를 매우 찬성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은 임신 중절 불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뻔뻔하게 보수 종파의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 담론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만나 여성이 선택할 권리에 대해 토론할 때는 특히 감정이 격해집니다. 천주교인으로서 저는 교회가 가진 입장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적 가치가 정치적 입장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법원을 극보수로 채워 헌법에 규정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보호책을 없애려는 공화당의 노력에 맞서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법에 서명했습니다.

로(Roe) 판결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다수 판결로 재확인했으며 최근 2016 년에 민주당 및 공화당 대통령 모두가 선택한 판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Roe) 사건은 공화당이 백악관을 통제하던 시기에 Richard Nixon 이 지명한 Warren Burger 수석재판관 하에 판결되었습니다. Nixon 이 지명한 Harry Blackmun 판사가 그 판결의 입안자였습니다.

Ronald Reagan 이 임명한 공화당 Sandra Day O'Connor 판사는 1992 년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스(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에서 법원은 “여성이 생존 능력이 생기기 전 임신 중단을 선택할 권리와 주의 지나친 간섭 없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법에 여성의 삶 또는 건강을 위협하게 만드는 임신은 제외한다고 명시된 경우 태아에게 생존 능력이 생긴 후에는 주에서 임신 중단을 제한할 힘”이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Trump 대통령과 그 협력자들은 여성 권리 공격의 일환으로 뉴욕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에 대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나라에서 모든 합법적 임신 중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은 여성이 임신 24 주 내 또는 태아가 생존 능력이 없는 경우 임신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삶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 후에도 임신 중단을 허용합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은 비난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출산 직전 임신 중단을 허용하지 않으며 임신 3 기 중단을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신 3 기 수술은 극히 적습니다. 모든 임신 중단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선택권은 로(Roe) 판례와 후속 사례에 명시된 여성의 삶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용 가능합니다.

뉴욕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서갔지만 우리 법이 로(Roe)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정립한 법을 따르도록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특히 여성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할 권리에 관하여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정치적 환경에서 법원이 로(Roe) 판례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로(Roe) 판례에 반대했던 극우파 Neil Gorsuch 와 Brett Kavanaugh 판사가 확정되며 더욱 커졌습니다. 대법원 관찰자들은 대부분 로(Roe) 판례가 과연 뒤집힐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뒤집힐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일부 주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Trump 대통령과 천주교 교회는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같은 주 조치가 기존 연방법과 굳게 정립된 관행을 성문화하는 것일 뿐인데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이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단을 하는 소수의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Trump 대통령과 그 협력자들이 임신 중단을 전적으로 불법화하려는 열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로(Roe) 판결 이전으로 되돌리려함에 대한 것입니다.

Trump 대통령과 보수 종파는 지지자를 흥분시키기 위해 뉴욕 법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극우파 운동가들은 해당 법이 출산 직전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뉴욕 대주교 Timothy Dolan 추기경, 천주교 교회는 임신 중단을 반대하지만 많은 천주교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임신 중단을 찬성합니다. 로(Roe) 판례를 지지하는 뉴욕 주민의 73% 중 59%는 천주교인입니다. 정부가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법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특정 종교의 지시에 따르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종교 학교에서 교육받았으며 복사를 썼습니다. 저의 천주교 가치는 개인적인 가치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또는 제 딸들에게 조언할 때 내리는 결정은 개인적 윤리와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운 분들 덕분에 모든 선출 공무원은 법에 개인적 종교적 믿음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취임 선서를 천주교 교회가 아닌 미국의 헌법과 뉴욕주에 했습니다. 공무를 처리할 때 제 종교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는 다원주의에 기반합니다. 수정 제 1 조(First Amendment)는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가장 신성한 우리의 자유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명시된 것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나라의 구분 없이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인 공무원이 선출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린다면 나라가 기능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와 종교적 믿음이 분리되어야만 우리는 종교적 자유의 설립 전제를 적용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과 윤리 원칙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